

조선후기 문집에 보이는 일본문헌

『격조선론(擊朝鮮論)』에 대하여

김시덕*

1. 서론
 2. 본론
 3. 조선으로의 유입 및 조선 내 유포 과정 검토
 4. 결론
- <부록> 『격조선론』 번역문

1. 서론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제12권 인사문(人事門) 「일본지세변 급 격조선론(日本地勢辨及擊朝鮮論)」과 한치윤(韓致淵: 1765-1814)의 『해동역사(海東繹史)』 제65권 『본조비어고(本朝備禦考)』 5 부록편에는 『격조선론』이라는 일본 문헌이 실려 있다. 『성호사설』에 따르면 이 문헌은 사신이 일본에서 얻어온 것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임진왜란을 근세 일본의 병학(兵學)적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다. 필자는 수 년에 걸쳐 임진왜란에 관한 근세 일본의 문헌들을 조사 분석해 왔으나, 『성호사설』·『해동역사』에 실려 있는 『격조선론』과 일치하는 내용의 문헌은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호사설』·『해동역사』에 실려 있는 『격조선론』의 본문 분석을 통하여 『격조선론』의 성립 사정, 조선으로의 유입 및 조선 내의 유통 상황을 추정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일본에서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병학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문헌이 통신사의 일본 내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조선에 유입되어 현존한다는 사실이 지니는 한일 교류사적 의의를 지적하고, 『격조선론』이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및 대(對) 일본 담론의 일각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부록으로 『격조선론』의 번역을 실는다.

2. 본론

2.1. 『격조선론』의 선행 연구

『성호사설』·『해동역사』에 수록된 『격조선론』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 학계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중국 문헌 이용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일본 문헌의 이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듯하다. 예를 들어, 조일간의 서적 교류를 분석한 이준걸 선생은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서적 유입에 주목하는 반면, “순수한 일본서적이 조선에 들어 온 것은 극히 그 양이 미미하여 한 장에 기술하기에는 너무나도 자료의 빈약성을 느낀다”²⁾고 하면서도, 본 논문의 테마인 『격조선론』 및 최근 들어 안대회 선생의 연구에 의해 조선 후기의 향유가 주목받고 있는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³⁾ 등의 문헌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하우봉 선생은 이익의 일본관을 분석하면서 『격조선론』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동기에 대해서도 성호는 일본인의 사서와 『격조선론』을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였다. (중략) 『격조선론』을 보고 평양성 전투와 벽제관 전투에 대해 분석 검토해 본 후 일본군의 전술상의 단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중략) 성호는 임진왜란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추구하고 함께 자기 손에 들어온 자료나 정보를 『성호사설』에 정리하여 입란의 기록 보존에도 힘을

2) 이준걸(1986), 194쪽.

3) 화한삼재도회의 유입·유포에 관하여는 안대회(2002)·안대회(2010) 등을 참조. 한편,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등의 일본 학자·문인들이 집필한 문헌이 조선 후기에 유입·유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므로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

기울었다. 예를 들면, 일본인이 쓴 『격조선론』을 보고 정리하여 기록하였으며 (하락).⁴⁾

하우봉 선생의 이와 같은 언급은 이익의 학문 경향과 관련하여 『격조선론』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주목되지만, 『격조선론』의 일본내 성립 사정 및 조선으로의 유입 과정 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도 보인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격조선론』이 속하는 병학 관련 연구가 근년에 들어서 비로소 본격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한국의 학계가 참조할 일본 측의 연구 성과가 마땅치 않았음에도 의거한다.

한편, 현재까지 필자는 약 160여점의 근세 일본 임진왜란 문헌을 확인하였으며,⁵⁾ 후술하듯이, 그 과정에서 『고려기(高麗記)』·『음덕태평기(陰德太平記)』 등의 내용이 『격조선론』의 서술과 일부 상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호사설』·『해동역사』에 실려 있는 『격조선론』의 본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헌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후술하듯이 일부 내용이 일치하는 문헌은 확인되지만, 이 문헌이 『성호사설』·『해동역사』에 실려 있는 『격조선론』의 원형은 아니다. 이처럼, 『격조선론』의 원형은 일본 내에서 이미 소멸되었을 가능성조차 있기 때문에 일본측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성호사설』·『해동역사』에 수록된 『격조선론』 본문의 분석을 통하여 이 문헌의 성립 사정을 추정하고, 일본내의 전래 상황을 추정하도록 한다.⁶⁾

4) 하우봉(1989), 74-78쪽.

5) 그 결과는 최관·김시덕(2010)으로 간행하였다. 이하,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근세 일본의 임진왜란 관련 문헌에 대하여는 이 책을 참조.

6) 『성호사설』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성호古091-29), 현대어 역은 민족문화추진회(2007: 번역 저본은 이돈형 소장본)를 이용하였다. 『해동역사』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50-174), 현대어 역은 민족문화추진회(2002: 번역 저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를 이용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성호사설』권12는 41쪽과 42쪽이 뒤바뀌어 있다. 또한, 『성호사설』의 현대어 역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

2.2. 『격조선론』의 저자

『격조선론』의 저자의 정체를 짐작케하는 기술이 문헌의 마지막에 적혀 있다.

이는 선생이신 고바야카와 요시히사[小早川能久] 어른께서 경계로 삼으셨던 바이다.⁷⁾

이에 따르면 저자는 고바야카와 요시히사 선생의 제자임을 알 수 있다. 고바야카와 요시히사는 근세 일본의 병법 유파 가운데 하나인 고슈류[甲州流] 병법 후쿠오카번[福岡藩] 계열 병법가이다. 고슈류 병법이란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장군인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의 병법 전략을 담은 『갑양군감(甲陽軍鑑)』을 기본서로 하여, 다케다 신겐의 아들인 다케다 가쓰노리[武田勝頼]를 모시던 오바타 가케노리[小幡景憲]가 창시한 병학 유파이다. 근세 일본 각지의 번주(藩主)를 포함하여 전국에 2천 여 명의 제자가 존재하였으며, 주요한 11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고바야카와 요시히사였다. 고바야카와 요시히사는 전국시대의 장군인 모리 모토나리[毛利元成]의 8남 고바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의 3남이다.⁸⁾ 이러한 혈연 관계로 인하여 『격조선론』에서는 고바야카와 히데카네 및 히데카네의 형이자 양아버지인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의 임진왜란 당시 동향이 특필되고 있다. 『격조선론』의 전체적인 서술 방식은 저자가 스승인 고바야카와 요시히사의 교훈을 참조로 하면서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안에서는 고바야카와 요시히사의 역사관·병학관이 짙게 느껴진다.

『격조선론』의 저자로 추정되는 유력한 인물은 고바야카와 요시히사의 제자인 고사이 시게스케[香西成質]라는 후쿠오카번[福岡藩]의 병학자이다. 『성호사설』·『해동역사』에 실려 있는 『격조선론』에는 고사이 시게스케라

7) “此先生小早川能久丈之所以爲戒也”(『해동역사』). 『성호사설』에는 “此先生[이는 선생이신]”이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

8) 고슈류 병법에 관한 이상의 설명은 石岡久夫(1972) 및 『國史大辭典』(吉川弘文館), 「甲州流」(石岡久夫 집필) 항목에 의거하였다.

는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그는 『격조선론』의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 시코쿠 지역의 사누키[讃岐] 출신인 그는 고바야카와 요시히사와 인연을 맺어 후쿠오카번의 사무라이로 채용되었다. 고사이 시게스케가 집필한 군담 『남해치란기(南海治亂記)』(1663년 성립)의 권17에는 일본 전국시대의 시코쿠 지역 및 후쿠오카 번의 장군들에 대한 짧은 일화가 다수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격조선론』의 문장과 일부 일치하는 문장이 산견된다. 그가 집필한 또 다른 군담인 『남해통기(南海通記)』(1716년 자서)의 첫머리에는 『일본지세기(日本地勢記)』라는 문장이 실려 있는데, 이 문장은 『격조선론』과 함께 『성호사설』 제12권에 실려 있는 「일본지세변(日本地勢辨)」이라는 기사와 유사하다. 『남해치란기』와 『남해통기』는 모두 일본어 문장으로 적혀 있으며, 17세기 후기-18세기 초에 일본에서 집필·출판된 군담의 경향을 생각하면 두 문헌은 처음부터 한문이 아니라 일본어로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문헌에는 고사이 시게스케의 제자인 다케다 사다나오[竹田定直]가 한문으로 적은 서문이 붙어 있으며, 다케다 사다나오와 가까운 사이였던 후쿠오카번의 유학자 가이바라 옛켄[貝原益軒]은 통신사와 밀접한 교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고사이 시게스케는 17세기 말-18세기 초의 특정 시기에 『남해치란기』와 『남해통기』의 원형으로 생각되는 문장을 일본어로 집필하였고, 이를 다케다 사다나오나 가이바라 옛켄이 한문으로 번역하여 통신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이바라 옛켄이 통신사에게 전달한 『격조선론』과 『일본지세기』는 한 묶음으로 이익에게 건네졌고, 이익은 두 기록의 저자가 동일하다는 인식 하에 『성호사설』 제12권에 이 두 기록을 함께 실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후쿠오카 폭격으로 인해 고사이 시게스케 관련 문헌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남해치란기』와 『남해통기』의 원형으로 생각되는 문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⁹⁾

9) 이상, 『남해치란기』와 『남해통기』에 관한 기술은 일본 방위대학교 이노우에 야스시[井上泰至] 선생의 교시에 의거하였다.

2.3. 원 『격조선론』의 표기 문자

사신이 일본에서 가져온 상태의 『격조선론』은 한문으로 적혀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격조선론』은 단순히 임진왜란의 사실을 서술한 역사서가 아니라 임진왜란을 병학적 입장에서 평함으로써 군사학적 교훈을 얻기 위한 평론이며, 이는 근세 일본에서 출판된 병서·군담의 일반적 경향과 일치한다. 이러한 군담의 본문은 흔히 고전 일본어인 초서체의 한자+가타카나 또는 한자+히라가나 문체로 기록되며, 이를 읽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학습이 필요하다. 조선인으로서 이들 문장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의 통교를 담당하던 극히 일부의 역관 계층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호사설』·『해동역사』에 한문의 『격조선론』이 실려 있는 것은, 한자+가타카나/히라가나로 작성된 뒤에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이익이 입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호사설』·『해동역사』에 실린 『격조선론』의 본문에서는 경상도 동래(東萊)가 공통적으로 등래(登萊)로 표기되어 있는 등, 근세 일본 임진왜란 문헌의 전형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격조선론』은, 다케다 사다나오나 가이바라 옻켄 등의 일본인이 일본어 문장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통신사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격조선론』의 성립 상한선

다음으로, 『격조선론』에는 명군의 이름 및 동향은 상세히 나와 있으나 『징비록(懲毖錄)』(1642년 간행)의 저자인 류성룡을 비롯한 조선군의 이름 및 동향은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격조선론』의 성립시기 상한선은 『양조평양록』·『무비지』 등의 명(明) 문헌이 일본에 유입된 이후, 더욱 정확히는 이들 문헌을 이용하여 막부와 관계된 학자들인 호리 교안[堀杏庵]과 하야시 라잔[林羅山]이 『조선정벌기』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를 집필하고 이들 문헌이 일본 내에 유포되기 시작한 1660년대이다.¹⁰⁾ 이

10) 임진왜란 문헌의 성립사정을 생각할 때, 『격조선론』의 저자로 추정되는 고사이 시게스케가 막부의 어용학자들보다 이른 시기에 명 문헌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는 근세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의 전개상 제2기와 제3기 사이에 해당한다.

[근세 일본 임진왜란 문헌의 전개]

【제1기】 참전 당사자 및 그 주변인들에 의한 비망록 등의 기록이 축적되어, 그 집대성적 성격을 띤 『다이코기(太閤記)』(1637년 3월 이전에 간행)의 권 13-15가 성립된 17세기 전기까지.

【제2기】 17세기 전기에 중국 명조(明朝)의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1606년 서문)과 『무비지(武備志)』(1607년 기고(起稿), 1621년 완성)가 일본에 소개된 뒤, 중국과 일본 양측의 문헌을 집대성한 『조선정벌기(朝鮮征伐記)』(1659년 간행)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보(豊臣秀吉譜)』(1658년 간행)가 성립된 17세기 중기까지.

【제3기】 17세기 후기에 류성룡(柳成龍)의 『징비록』·『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1632년 간행) 등의 문헌이 일본에 소개됨으로써 임진왜란의 당사자였던 3국의 문헌이 일본에 집결된 뒤, 이들을 집대성한 『조선군기대전(朝鮮軍記大全)』과 『조선태평기(朝鮮太平記)』가 18세기 초기의 1705년에 간행될 때까지.

【제4기】 에도시대 후기의 역사소설인 요미혼[讀本] 장르의 『에혼다이코기(繪本太閤記)』(1797-1802년 간행)와 『에혼조선군기(繪本朝鮮軍記)』(1800년 간행)가 성립된 19세기 초기까지.

【제5기】 『에혼 다이코기』와 『에혼 조선군기』의 간행으로부터 막부(幕府) 멸망을 전후한 19세기 말까지.¹¹⁾

한편, 류성룡의 『징비록』의 일본내 유입이 최초로 확인되는 시기와 장소는 1683년의 쓰시마[對馬]이며, 『징비록』의 본문이 일본 각지에 본격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교토에서 일본판[和刻板] 『조선 징비록』이 간행된 1695년이다.¹²⁾ 서일본 거주자인 고바야카와 요시히사의 제자로 생각되는 저자는 1683-95년 사이에 서일본에서 조선판 『징비록』을 입수할 수 있는

11) 김시덕(2010), 23쪽.

12) 김시덕(2010), 159쪽.

가능성이 있었고, 늦어도 1695년에 일본판 『조선 징비록』이 간행된 이후에는 이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징비록』이 유입된 뒤인 1702년에 간행되었으나 명·조선 문헌의 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려진 일기(高麗陣日記)』와 같은 예외도 존재하기 때문에, 『징비록』의 기사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로부터 『격조선론』의 성립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한편,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집필된 고사이 시게스케의 『남해치란기』·『남해통기』에는 『격조선론』·『일본지세기』와 같은 기원으로 생각되는 문장이 실려 있다. 그러나, 『남해치란기』·『남해통기』에서 『격조선론』·『일본지세기』의 문장이 직접 비롯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남해치란기』·『남해통기』의 성립 시기는 『격조선론』·『일본지세기』의 성립시기를 추정하는데 참고자료로서만 기능한다.

2.5. 『격조선론』의 계통

『격조선론』은 내용상 모리[毛利] 가문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리 가문 계통이란, 중세에서 근세에 걸쳐 서일본의 유력한 다이묘 가문이었던 모리 가문의 관련자가 집필한 임진왜란 관련 문헌을 가리킨다. 1592년 당시 모리 가문은 적자인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의 영도하에 제7군을 구성하였다. 『격조선론』이 모리 가문 계통 문헌으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기사 첫머리의 일본군의 선봉부대에 대한 언급이다. 근세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군은 일반적으로 1592년의 일본군을 이끈 것을 제1군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제2군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라고 서술하는 반면, 『고려기』·『모리 히데모토기(毛利秀元記)』·『온고사기(溫故私記)』 등 다수의 모리 가문 계통 문헌에서는 우키타 히데이에[宇喜田秀家]와 더불어 모리 가문이 일본군의 선봉에 섰다고 서술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라는 모리 가문이 일본군을 이끌었다는 『격조선론』의 서술 태도는 모리 가문 계통 문헌과 상통한다.

그런데, 주요한 모리 가문 계통 문헌에서는 모리 데루모토가 일본군을

이끌었다고 서술되는 반면, 『격조선론』에서는 모리 데루모토 대신 그의 삼촌인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는 『격조선론』은 모리 가문 직계가 아닌 모리 가문 방계인 고바야카와씨의 후손인 고바야카와 요시히사 관련자가 저술하였기 때문이다. 모리 가문은 **모리 모토나리**[毛利元就]가 중세 서일본의 패자인 오우치[大内]¹³⁾·아마코[尼子]·스에[陶] 가문을 정복하면서 서일본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모리 가문의 직계는 모리 모토나리의 장남 **모리 다카모토**[毛利隆元]로, 그의 아들인 **모리 데루모토**가 임진왜란 당시에도 제7군의 모리 가문 전체를 지휘하였다. 한편, 모리 모토나리의 차남 깃카와 모토하루[吉川元春]의 아들 **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도 임진왜란에 참전하였으며, 그의 후손이 지배한 이와쿠니번[岩國藩]에서 작성한 『음덕태평기』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모리 데루모토보다 깃카와 히로이에가 더욱 공훈을 세웠다고 강조한다. 모리 모토나리의 3남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로, 그는 근세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에서 일본군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로 칭송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리 모토나리의 9남인 **모리 히데카네**[毛利秀包]는 후에 형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양자가 되어 고바야카와 히데카네, 또는 구루메 성[久留米城]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루메 히데카네로 불렸으며, 그는 바로 『격조선론』의 저자의 스승인 **고바야카와 요시히사**의 아버지에게 해당한다. 따라서, 『격조선론』의 첫머리에서는 모리 데루모토 대신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이름이 보이는 것이며, 본문에서는 고바야카와 히데카네의 행적도 특필된다.

2.6. 『격조선론』의 집필 태도와 역사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동향을 상술하고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사망 기사까지 길게 수록하는 『격조선론』의 집필 태도는, 모리 가문의 또 다른 방계인 깃카와 가문에 속하는 문헌인 『음덕태평기』 권77·79 등의 그것과 유사하다.¹⁴⁾ 또한, 1593년의 제2차 평양성 전투 및 벽제관 전투까지는 상술

13) 오우치씨는 백제 왕족인 임성태자(琳聖太子)의 후손을 자처하였다. 김시덕(2010), 제2부 제3장 참고.

14) 참고로, 『음덕태평기』의 원형인 『음덕기』 권76에는 고려말에 대하여, 라는 한국어 관련 기

되고 그 이후는 약술되어 있는 『격조선론』의 내용은, 또 다른 모리 가문 계통 문헌인 『고려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처럼 모리 가문 계통 문헌군 가운데에는 『격조선론』과 일부 내용이 상통하는 문헌도 확인되기는 하지만, 전적인 일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예컨대, 고니시 유키나가가 한양으로의 퇴각을 요구하였다가 고바야카와 히데카네에게 거절당했다는 기사의 주체는, 『조선정벌기』(권2)와 같은 근세 일본의 일반적인 임진왜란 문헌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패배에 겁먹은 오토모 요시무네[大友義統]로 서술되며, 퇴각을 거부하는 것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등으로 비정된다. 『음덕태평기』(권77)와 같은 모리 가문 방계 계통 문헌에서는 고바야카와 히데카네가 퇴각을 거부하는 주체로 나오기는 하지만, 퇴각을 권유하는 것은 역시 오토모 요시무네이다.

이처럼 『격조선론』의 임진왜란 기사는 여타 문헌의 서술과는 독립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저자 또는 그 스승인 고바야카와 요시히사가 독자적인 역사관에 의해 병학적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사례로서 임진왜란을 다루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근세 일본의 많은 임진왜란 문헌과는 달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비판하는 『격조선론』의 내용 역시 저자의 독자적인 역사관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조선 침략과 일본군의 공훈을 모두 칭송하는 다수의 근세 일본 임진왜란 문헌과는 달리, 『격조선론』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및 조선 침략에 대한 비판과 일본군의 행적에 대한 찬탄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적 성격은 『게이초 중외전』¹⁵⁾ 등 소수의 임진왜란 문헌과 공통된다.

사가 실려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관·김시덕(2010), 201쪽 참조.

15) 김시덕(2011) 참조.

3. 조선으로의 유입 및 조선 내 유포 과정 검토

3.1. 조선으로의 유입 과정

앞 절에서는 『성호사설』·『해동역사』에 실려 있는 『격조선론』의 본문 분석을 통하여 원 『격조선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격조선론』이 언제 어떻게 조선에 유입되어 조선 내에서 유통되었는지 분석한다. 『격조선론』이 조선으로 전래된 과정에 대하여는 『성호사설』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근간 왜국에 사신 가서 왜인들의 문자 몇 편을 얻어온 이가 있다¹⁶⁾.

이는 『격조선론』이, 『간양록(看羊錄)』을 쓴 강항과 같은 임진왜란 당시의 포로들이 일본에서 입수하여 조선으로 비밀히 보낸 첩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성호사설』에서 말하는 사신이란 통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격조선론』의 성립 상한선인 1660년대부터 성호 이익(1681-1763)의 사망 사이에는 1682년의 제7회, 1711년의 제8회, 1719년의 제9회, 1748년의 제10회 등 총 4회의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격조선론』의 저자가 고슈류 후쿠오카번 계열의 병법가의 제자인 고사이 시게스케로 생각되고, 그 내용 역시 서일본 지역의 다이묘인 모리 가문 계통의 문헌임을 생각하면, 다케다 사다나오나 가이바라 옛켄이 한문으로 번역한 문헌을 이들 네 번의 통신사 일행 가운데 누군가가 서일본(아마도 후쿠오카 번)에 체류하는 동안에 아마도 가이바라 옛켄으로부터 입수했을 것이다.

이익의 언급으로부터는 통신사 일행이 어떠한 상황에서 『격조선론』을 입수하였는지를 추측해하는 힌트를 찾을 수 없으나, 일본측의 학자·관료·상급무사들이 임진왜란 당시 일본측 장수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문헌을 통신사 일행과의 창화석상에서 공공연히 제시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격조선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그 자체에 대하여는 비판적이기

16) “近有使倭者得倭人文字數篇來”(『성호사설』 권12, 39a).

때문에, 창화석상에 배석한 일본측 인사가 조선 측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임진왜란에 대한 조선측 인사의 반응을 떠보기 위하여 『격조선론』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동역사』에는 『격조선론』 본문이 인용된 뒤에 『정벌기(征伐記)』라는 어구가 할주로 붙어있는데, 『해동역사』 권65의 문헌 인용방식을 고려하면 이는 『정벌기』라는 문헌 안에 『격조선론』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그렇다면, 통신사가 접한 『격조선론』 본문은 『정벌기』라는 제목이 달린 문헌의 일부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본측 인사가 『정벌기』라는 제목의 임진왜란 문헌을 창화석상에서 통신사 일행에게 건넸다는 가정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역관을 비롯하여 현지의 일본인들과 직접적 교류를 맺고 있던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이 문헌을 입수하였다고 상정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다.

기존의 통신사 관련 연구에서는 통신사들이 일본 학자·문인들의 작품이나 『화한삼재도회』 등의 문헌을 입수한 사실이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 이외에도, 『격조선론』과 같은 희귀한 병학 관련 문헌까지 통신사의 입수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는 『격조선론』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담은 문헌을 입수할 수 있었던 통신사의 일본 내 인적 네트워크의 수준을 짐작케 해 줄 뿐 아니라, 일본의 정치·군사적 정세를 엿보는 통신사의 역할을 상징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일본의 정치·군사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로 다양한 문헌을 입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3.2. 조선내의 유포와 학문적 의의

다음으로, 통신사를 통하여 조선에 들어온 『격조선론』이 조선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포되고 이용되었는지 추정하고, 그 학문적 의의를 지적한다.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범위 안에서는, 『격조선론』을 수록하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의 문헌은 『성호사설』·『해동역사』, 그리고 규장각 소장본 『택리지(擇里誌)』¹⁷⁾의 3점이다. 19세기 중기에 편찬된 『오주연문장전산고(五

17) 古4790-55, 1책, 필사본. 여기에는 부록으로 『격조선론』을 포함한 『성호사설』의 일부가 전

洲衍文長箋散稿』경사편 4 사적류 1 사적총설(史籍總說)에는 당시까지 조선에 존재하였거나 조선의 학자들이 인지하고 있던 일본의 역사서 및 조선인이 편찬한 일본 관련 서적이 다수 열거되어 있는데 『격조선론』이라는 서명은 보이지 않는다. 광범위한 문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한에서는 『격조선론』이 조선 후기에 널리 유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격조선론』이 실려 있는 『성호사설』·『해동역사』·『택리지』의 저자인 이익, 한치윤, 이중환은 모두 남인이므로 『격조선론』은 남인 계통에서 전승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⁸⁾

한편, 『성호사설』과 『해동역사』 각각의 현존본을 널리 조사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두 문헌의 필사본에 수록된 『격조선론』의 본문 비교를 통하여 『격조선론』의 조선 내 유포 상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① 두 문헌에 실린 『격조선론』본문의 자구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지만, 상호간에 이본이라 부를 만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

② 근세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에서는 경상도 동래(東萊)를 등래(登萊)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 문헌에서도 공통적으로 등래라는 표기가 동래를 대체하고 있다. 이는 두 문헌이 일본에서 작성된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두 문헌 모두에서 「井上五朗[이노우에 고로]」를 「井上朗」로, 「久留米秀包[구루메 히데카네]」를 「米秀包」(『성호사설』)·「未秀包」(『해동역사』)로 표기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는 원 『격조선론』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해동역사』수록 본문의 「井上五朗及元康[이노우에 고로와 (모리) 모토야스]」가 『성호사설』수록 본문에서는 「井上五朗元及康」으로 잘못 표기되어 인명이 해체되어 버렸다. 한편, 『해동역사』수록 본문에서는 「増田長盛[마시다 나가모리]」의 「盛」이 「城」으로, 「宇喜田秀家[우키타 히데이에]」의 「秀」가 「守」로, 「石田三成[이시다 미쓰나리]」의 「成」이 「城」으로 잘

재되어 있다.

1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함영대 선생의 교시에 의함. 참고로, 안정복(安鼎福 : 1712-91)이 편찬한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에는 『격조선론』 본문이 실려 있지 않다.

못 표기되어 있다.

④ 『성호사설』에 수록된 『격조선론』의 마지막 문장은 「小早川能久丈之所以爲戒也」인 반면, 『해동역사』에 수록된 『격조선론』의 마지막 문장은 「此先生小早川能久丈之所以爲戒也」라고 되어 있다. 『해동역사』가 「此先生」이라는 단어를 첨가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선에 전래된 원『격조선론』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⁹⁾.

⑤ 또한, 『해동역사』에서는 위의 문장 뒤에 『정벌기(征伐記)』라는 어구가 할주로 붙어 있다. 『해동역사』권65의 문헌 인용방식을 고려하면, 이는 『정벌기』라는 문헌 안에 『격조선론』이라는 기사가 실려있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근세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 가운데 『정벌기』라는 제목이 포함된 문헌에서는 『격조선론』과 일치하는 기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벌기』라는 제목의 문헌에 포함된 형태의 『격조선론』을 4번의 통신사 일행 가운데 누군가가 서일본에서 입수하여 조선에 유입하였고, 특히, ③·④·⑤번의 결과는 이익과 한치윤이 각각 『격조선론』의 본문을 입수하여 인용하였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입수한 『격조선론』의 본문을, 이익과 한치윤은 임진왜란 및 일본에 대한 자신들의 담론 전개에 이용하고 있다. 이익의 경우에는 조선·명 문헌의 내용과 일본의 문헌인 『격조선론』의 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이제까지 의문으로 삼고 있던 몇 가지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자신의 일본관에 반영하고 있다.²⁰⁾ 한편, 한치윤의 경우에는 『해동역사』 권61-64에서 『화한삼재도회』 등에 실려 있는 근세 일본의 임진왜란 담론을 포함한 조선·명·일본 삼국의 임진왜란 담론을 통합하여 입체적인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격조선론』은 권61-64에서 참고문헌의 하나로 인용되는 대신 권65의 부록에 실려 있고, 여기에는 한치윤 자신의 해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서 서술한 대로 『격조선론』이 단순한 임진왜란 관련 역사

19) 규장각 소장본 『택리지』에 인용된 『격조선론』에 “此先生”이 적혀 있다는 사실도 위의 추론을 뒷받침한다.

20) 주4 하우봉(1989) 인용문.

서가 아닌, 저자의 독자적인 역사관에 의한 병학론·사론(史論)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측의 역사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룬 것으로 생각된다. 이익과 한치윤이 『격조선론』을 이용한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임진왜란을 조선·명·일본의 삼국이 전개한 국제전쟁으로서 이해하기 위하여 삼국에서 제작된 문헌을 모두 입수하여 이용하고자 한 자세는 공통되는 것이다. 참고로, 근세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이러한 입체적 연구의 결과물로서 1705년에 『조선군기대전』과 『조선태평기』가 교토에서 동시 간행되었고,²¹⁾ 이러한 관점에서 제작된 청의 문헌은 과묵한 탓에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격조선론』은 물론, 『화한삼재도회』 등 다수의 일본 문헌의 수용에 의한 조선후기의 일본 담론 성립 및 전개는, 근세 일본에서의 동일한 동향과 아울러 근세 동아시아 학술사적으로 특기할만한 일이다.

4. 결론

이상, 조선 후기의 『성호사설』·『해동역사』 등에 수록되어 있는 근세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인 『격조선론』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그 성립 사정을 추정하고, 조선으로의 유입 및 조선내의 유포 과정, 그리고 이용 방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는 일본의 학자·문인들이 저술한 문헌이나 『화한삼재도회』 이외에, 근세 일본의 병학 전통을 잇고 있는 『격조선론』과 같은 군사 정보도 수집 대상으로 삼았으며, 조선의 학자들은 통신사가 입수한 이러한 자료를 임진왜란의 입체적 담론 형성에 이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익이 『성호사설』 제12권 「일본지세변급 격조선론」에 두 개의 기사를 함께 실은 이유는, 두 기사의 저자가 같은 사람(고사이 시게스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이러한 추정 과정은 전근대 일본 병학의 연구 성과가 고전 한국학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다.

21) 김시덕(2010), 제1부 제1장 제3절 참조.

또한, 근세 일본에서 거의 유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학 문헌이 조선으로 전래되어 조선 후기의 임진왜란 담론 형성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한일 교류사 및 조선 후기의 일본 담론 연구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 近藤瓶城, 『改定史籍集覽』 第7 第30-32 南海通記・豊薩軍記・安西軍策, 近藤活版所, 1900.
- 「南海治亂記」, 香川新報社, 1913.
- 石岡久夫, 『日本兵法史 上』, 雄山閣, 1972.
- 이준걸, 『조선시대 일본과 서적교류연구』, 홍익재, 1986.
-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일지사, 1989.
- 안대회, 「『왜한삼재도회』와 18·9세기 조선의 학문」, 『왜한삼재도회』, 국학자료원, 2002.
- 민족문화추진회, 『해동역사』 VII, 민족문화추진회, 2002.
- 민족문화추진회, 『신편국역 성호사설』 6, 한국학술정보, 2007.
- 안대회, 「18·19세기 조선의 백과전서과와 『화한삼재도회』」, 『대동문화연구』 69,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0·3.
- 金時德, 『異國征伐戰記の世界-韓半島・琉球列島・蝦夷地』, 笠間書院, 2010.
- 최관·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해제 - 근세편」, 도서출판문, 2010.
- 김시덕, 「인용에 의한 담론 생성 - 근세 초기 일본의 임진왜란 담론 형성과정 -」, 『일본학연구』, 단국대학교, 2011·1

On a Japanese book *Gyeok Joseon Ron*(*Geki Chosen Ron*)

mounted in books by Kore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period

Seongbo Saseol written in the late Joseon period contains *Gyeok Joseon Ron*(*Geki Chosen Ron* in Japanese) and *Ilbon Jise Byeon*(*Nihon Chisei Ki* in Japanese) written in pre-modern Japan. But little is known about by whom and when this book was written. So, by the method of textual criticism, I speculated on bibliographic items of *Gyeok Joseon Ron* and the way it was transmitted to Joseon dynasty.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Gyeok Joseon Ron*, almost unknown in pre-modern and modern Japan, was used as important reference material by scholars of Joseon period analyzing discourse of Hideyoshi's invasion to Korea. It was thought that *Gyeok Joseon Ron* was written by Kosai Shigesuke, who was professor of military science in Fukuoka-han. *Nankai Chiran Ki* and *Nankai Tsūki* by Kosai Shigesuke have articles similar but not the same as *Gyeok Joseon Ron* and *Ilbon Jise Byeon* in *Seongbo Saseol*.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original books of *Gyeok Joseon Ron* and *Ilbon Jise Byeon* have existed in 17 century Japan and were translated in classical Chinese by his acquaintances as like Kaibara Ekken who was distinguished neo-confucianist in 17 century Japan. And it would be that Kaibara Ekken passed this book to Korean embassy who has been sent from Joseon dynasty to gather political and military informations on Japan. The embassy again gave *Gyeok Joseon Ron* and *Ilbon Jise Byeon* to I Ik, the author of *Seongbo Saseol*, and they have been handed down to the I Ik school as the author of *Haedong Yeoksa*. It was likely that I Ik has known *Gyeok Joseon Ron* and *Ilbon Jise Byeon* have been written by the same author. That is the reason why I Ik mounted *Gyeok Joseon Ron* and *Ilbon Jise Byeon* in the same chapter of *Seongbo Saseol* Vol. 12. The fact that military books of Japan, almost unknown to pre-modern and modern Japanese, were transmitted to Joseon dynasty by Korean embassy and used as important reference books for scholars in Joseon period Korea indicates that study on Japan-Korea cultural exchanges and discussions on Japan in the late Joseon period have room for new approach. At the

same time, the above supposition shows that knowledge on classical japanology is useful for the study on classical koreanology.

keywords : *Seongbo Saseol, Haedong Yeoksa, Gyeok Joseon Ron, Nankai Chiran Ki, Nankai Tsūki*

접수일자: 2011. 3. 30 심사기간: 2011. 3. 30~2011. 5. 20 게재결정: 2011. 5. 20

맹자는 “작은 것은 참으로 큰 것을 상대할 수가 없으며, 약한 것은 참으로 강한 것을 상대할 수가 없다”하였고, 손무자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 굳게 싸우면서 많은 군사를 가진 자와 대적하면 반드시 사로잡히게 된다”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은 이를 잘 모르고 멀리 대명국(大明國)을 정벌하고자 하여 조선 측에게 길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조선국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은 13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먼저 조선을 정벌하고자, 우키타 히데이에를 대장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를 모주(謀主), 안쿠쿠지 에케이를 감군(監軍), 고니시 유키나가를 선봉으로 삼았다.

이키 섬에 이르러 바람을 기다리는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남몰래) 앞서 출발하여 부산포에 이르렀다. 조선 군사 2만 명이 지키는 부산성을 고니시 유키나가가 급히 공격하여 함락시키고는 8천여 급을 참획하였으며, 이어 동래성으로 진격해서 9백여 급을 참획하였다. 그런 뒤에 충주에 이르러서 비밀스런 계책으로 갑자기 공격하여 성 주변을 방화하자 적들은 와해되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이 죽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뒤를 따라 바다를 건너온 여러 장수들이 충주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만나, 두 길로 군사를 나누어 진격하였다. 가토 기요마사는 남대문으로 진격하는 군대의 선봉이 되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동대문으로 진격하는 군대의 선봉이 되어 곧장 왕성을 향하여 진격하니, 조선왕은 의주로 달아났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왕성을 점거하였고, 가토 기요마사는 태자 임해군과 차자(次子) 순화군이 오랑캐²³⁾로 달아났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추격하여 이들을 사로잡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은 대명이 군사를 보내 조선을 구원할까 염려하여 6만 명의 군사를 더 보내고, 이시다 미쓰나리, 오타니 요시쓰구, 마시타 나가모리로 하여금 이들을 지휘하게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왕성에 모여서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에게 군사의 계책을 물으니, “조선은 대명의 속국이다.

22)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작성한 『성호사설』과 『해동역사』의 번역을 참조하면서 일부를 수정 번역하였다.

23) 온성·종성·회령 너머 간도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족. 일본 문헌에서는 가토 기요마사 군이 함경북도에서 두 왕자를 생포한 뒤에 두만강을 넘어 이 지역까지 공격했다고 서술된다.

조선이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명의 군사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우리 측은 군사가 적는데 조선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고 있으며, 군량이 부족하고 힘이 달리니 장차 후환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승리한 위세를 타고서 군사를 물려 부산포로 돌아가 군사를 정돈하고 군량을 저축하여 명나라 군사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지구전을 하면 이롭고 급히 싸우면 불리하다” 하였으나, 여러 장수들은 그 의견에 따르지 않고 그를 겁쟁이라 하면서 모두 압록강을 건너서 곧장 대명으로 진격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어쩔 수 없이 이시다 미쓰나리의 계책을 받아들여 보루를 쌓아 근본을 단단히 하면서 차례차례 진격해 평양으로 들어가 옛 성을 지켰다. 오토모 요시무네, 구로다 나가마사, 구루메 히데카네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최후방을 맡았다. 우키타 히데이에와 이시다 미쓰나리는 왕성에 남아서 지켰다.

이때 요동 변수(遼東邊守) 조승훈이 군사 3천명을 거느리고 안정관에 도착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먼저 날랜 군사를 내보내어 역습하여 승리하고는 기뻐하며 “대명의 군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였다. 대명에서는 장수 이여송으로 하여금 군사 5만 명을 출동시켜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이여송은 명군과 조선군을 합쳐 20만 명으로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사 중 사망한 자가 1만 명이었으며 수하에는 겨우 패잔병 5천명만이 남았다. 고니시 유키나가도 도망쳐 돌아와 구루메 히데카네에게 “대명의 군사가 크게 이르렀으니 보루를 버리고 도망쳐야 한다” 하자, 구루메 히데카네는 “적병의 깃발을 보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무사가 할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싸움이 있을 뿐이다” 하였다. 우키타 히데이에의 고니시 유키나가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놀라서 급히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등에게 사신을 보내어 왕성에서 퇴각하게 하니,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원병이 나올 것은 일찍이 예상하던 바이다. 그러나 나는 바다를 건너 오던 날부터 이 땅에서 싸우다가 죽기로 뜻을 세웠으니 먼저 물러날 수 없다” 하였다. 한편 우키타 히데이에 등의 왕성 주둔 사령부는 사람을 보내어 가토 기요마사를 오랑캐와의 경계 지역에서 돌아오도록 하여 왕성에서 모두 모였다.

이여송은 이미 평양성을 함락하고는, 패주하는 적을 추격해 개성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조선 군사 수만 명을 유격대 삼아 왕성 주위 사방에 매일 밤 방화하게 하니 왜병들은 더욱더 두려워하였으며, 군량이 모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었다. 어떤 자가 이여송에게 “왜적들 가운데 강한 군졸은 평양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하니 지금) 전군을 동원하여 진격하면²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여송이 이 말을 믿고는 고승, 손수렴, 조승훈으로 하여금 2만 명의 군사로 선봉이 되게 하고, 이여송 자신은 중군(中軍)이 되고 조선의 군사들이 후군이 되게 하여 벽제관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다치바나 무네시게,²⁵⁾ 구루메 히데카네 등을 통솔하면서 선봉이 되어 군사를 정돈하고서 이여송의 군사를 기다렸다. (1593년) 1월 26일에 다치바나 무네시게의 군사가 대명의 군사와 어둠 속에서 서로 만났는데,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 다치바나 무네시게가 부하들을 격려하며 물러나지 않고 있을 때 구로다 나가마사가 질풍처럼 달려와서 구원하였으므로 다치바나 무네시게가 마침내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 날 이여송이 또다시 공격해 왔다. 왜의 여러 장수들이 선봉이 되어 싸우기를 다투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제군은 그러지 말라. 오늘의 일은 오직 늙은 내게 맡기라” 하니 우키타 히데이에가 이에 따랐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군사 2만여 명을 내어 세 부대로 나누었다. 즉, 다치바나 무네시게, 구루메 히데카네, 쓰쿠시 히로카도, 다카하시 나오쓰구가 6천명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고,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1만 2천명을 거느리고 중군이 되고, 모리 모토야스가 6천명을 거느리고 후군이 되어 적과 만났다. 다치바나 무네시게의 군사가 작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조총을 쏘아 적들을 퇴각시키고는 하천을 건너가 적들과 교전하였다. 말에서 떨어져 사로잡히게 된 구루메 히데카네는 단도로 저항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쓰쿠시 히로카도와 다카하시 나오쓰구는 서로 힘을 합하여 싸움을 도왔으며, 감군 안코쿠지 에케이가 지휘하여 힘껏 싸워 명군을 격파하였다.²⁶⁾

24) 『성호사설』에는 ‘進擊’, 『해동역사』에는 ‘盡擧’라 되어 있다. 둘을 합쳐 의역하였다.

25) 『성호사설』·『해동역사』에는 ‘統茂’로 되어 있는데, 이는 ‘宗茂’의 오자일 것이다. 벽제관 전투 당시의 일본군 선봉대의 한 명이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였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멀리서 이여송의 깃발을 보고는 좌우 군사를 모아 명의 중군으로 곧장 쳐들어갔다. 좌군 구리야 시로베가 잠시 물러나고 우군 이노우에 고로 및 모리 모토야스가 와서 구원하면서 오전 10시 경부터 정오 무렵까지 열전을 벌였다. 우키타 히데이에가 후군에 있으면서 무너져 도망치는 명군을 목 베자 여러 장수들이 앞다투어 나아갔다. 이여송의 장수인 이여백, 이여매, 이영, 이유승, 양원 역시 사투를 벌였다. 이유승은 직접 몇 명을 목 베고 탄환에 맞아 죽었다. 이여송은 말에서 떨어져 이노우에 고로에게 사로잡힐 뻔 한 것을, 명나라 군사 수백 명이 이여송을 구원한 탓에 말을 타고서 도망쳤다. 전사한 명군은 1만여 명이었고,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개선가를 울리면서 돌아왔다. 무릇 이여송은 대명의 훌륭한 장군이고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일본의 지혜로운 장군인데, 중국과 일본의 두 영웅이 서로 만나 승패를 겨룬 것은 고급에 없었던 일이다.

이여송이 군사를 거두어 개성으로 물러난 다음 장차 평양으로 물러나 지키려고 하였다. 이때 마침 남중국 병사[南兵] 수천 명이 뒤이어 도착하였으므로 이여송은 이들을 믿고 움직이지 않았다. 왜병 역시 임진강[開城川]을 넘지 않고 오랫동안 서로 버티었다. 그러나 명군은 숫자가 날로 불어나는데다가 조선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반면, 왜군은 후원군이 없는데다가 조선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에게 증원군을 보내 주기를 요청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이 2만 명의 군사를 증원해 구원하게 하였으나 형세가 서로 상대가 되지 않았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여러 장수들을 모아 놓고 의논하기를 “적들은 날로 편안해지는데, 우리는 날로 피곤해지는데다가 군량마저 장차 고갈되게 되었으니, 부산포로 물러나 지키고 있으면서 뒷날을 도모하느니만 못하다” 하니 모두 그 말에 따랐다. 왜병들이 왕성을 점거하였을 때에 조선 사람 가운데 와서 붙은 자의 수가 왜병들보다 더 많았다. 어떤 자가 “조선 사람들을 유인하여 모두 죽이자. 그렇지 않으면 계책이 누설되어 퇴로가 막힐 것

26) 이 부분이 『성호사설』에는 ‘安國寺惠瓊楊餓鬼旌而進採拂子指揮奮擊破之’, 『해동역사』에는 ‘安國寺惠瓊楊餓鬼旌進採[采+弗]子指揮奮擊破之’라 되어 있다. 어느 한 쪽의 본문을 채택하기 어려워 의역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본 『성호사설』 본문의 ‘擊’은 국립중앙도서관본 『해동역사』에서는 ‘擧’와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안 된다. 조선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군수품을 운반할 수 없다.²⁷⁾ 급히 군영을 불사르고서 연기가 치솟는 틈을 타 퇴각하느니만 못하다. 그러면 백성들이 놀라서 반드시 우리의 뒤를 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조선의 모신(謀臣: 류성룡 - 번역자)이 이여송에게 “급히 추격하면 왜적들을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라 고하였으나 이여송이 듣지 않았다.

우리 측 군사가 드디어 부산포에 이르러서 명나라 장수 심유경이 오기를 기다려 강화(講和)를 맺고자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이 또 진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장군들은 모두 전쟁에 염증을 내어 돌아갈 생각을 품고 있었으며 질병으로 사망한 병사들도 매우 많았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미 평양에서 패하여 기운이 더욱 꺾였으므로 삼사(三司)²⁸⁾와 모의하여 화의를 성사시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에게 보고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은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군사들로 하여금 철수해 돌아오게 하였다. 국민들은 남녀노소 만세를 부르고 환호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공을 가상히 여겨 크게 조정에 보고하여 주나곤(中納言)에 임명케 하였으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늙었음을 이유로 이를 사양하고, 지쿠젠의 영지를 아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빈고 지역 미하라에 물러나 살다가 1597년에 병으로 죽으니 향년 62세였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에게 어떤 자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죽었으니 모리 가문은 역락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역락(力落)’이란 치명적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다.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은 “그렇지 않다. 나라는 현인이 있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모리 가문이 역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역락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군사를 조선으로 보냈다.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구로다 나가마사가 차례차례 진군하여 모두 8군이 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나 전쟁에 염증을 느낀 왜병들은 깊숙이 들어가는

27) 이 부분이 『성호사설』에는 ‘非朝鮮人, 我輜重無以運矣’, 『해동역사』에는 ‘非朝鮮人, 我經重無以還矣’으로 되어 있다. 『성호사설』의 본문에 따랐다.

28) 이시다 미쓰나리, 오타니 요시쓰구, 마사타 나가모리.

대신에 바닷가에 보루를 쌓고 지구전을 벌일 계획을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남원성을 함락시키고 울산성에서 적들을 퇴각시킨 공훈 역시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은 오로지 학살하기만을 좋아해서 장차 조선을 불모지로 만들려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이를 원수처럼 보았다. 일본 역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져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도적들이 일어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의 웅대한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울적해 하며 오직 화의만을 생각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마침내 규슈 나고야의 군영을 떠나 교토로 돌아가서는 후시미에 성을 쌓고 거처하였다. 조선에 있을 때 고니시 유키나가가가 유정의 책략에 빠져서 사로잡힐 처지였는데, 마침 그 모의를 고해 주는 자가 있어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으니, 이는神明(神明)이 우리나라를 지켜 준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이 1598년 8월에 죽자 드디어 외국에 나가 있던 군사들이 모두 철수하여 우리나라를 위태로운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술책이 없으면서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 군사를 징발하여 멀리 옆나라를 정벌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살해하였으며, 천 리 길에 군량을 수송하느라 우리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므로神明에게 죄를 얻어서 그 자신이 죽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아 왜국이 크게 어지러워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 공이 마침내 1614-5년의 오사카 겨울·여름 전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작은 것으로써 큰 것을 치는 것은 재앙이다”라 한 것이다. 나의 이 말은 망령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생이신 고바야카와 요시히사 어른께서 경계하셨던 바이다.

- 『정벌기(征伐記)』